



청년 제자훈련 1기생들 단기선교 모습.

## 청년 연합집회 파이어 크루세이드 성료

### 훈련생들,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 가져

지난 25일(토) 청년 연합집회 파이어크루세이드가 은혜가운데 마쳤다. 이날 6개 교회 연합팀으로 이뤄진 찬양팀의 예배인도 후, 정기정 목사(샘물교회)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전했다. 정 목사는 말씀 중에 특별히 지난 6개월간 진행된 청년제자훈련 1기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했는데, 15명의 훈련생이 공통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의 마지막 코스인 단기선교 후에 삶의 관점이 달라진 간증들을 나눴다. 훈련에 참여한 크리스천 청년들의 공통점으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알지만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함 △자존감이 매우 낮음 △냉소적이고 방관자적인 신앙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하나 깊이 묵상하거나 적용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어 훈련을 통해 이런 청년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원리로 △

제자가 되려면 시간을 투입 △학습에서 실천으로 연결 △그들이 듣고 있는 거짓말을 진리로 전환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LA 교회와 청년들의 부흥을 꿈꾸는 파이어크루세이드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샘물교회에서 집회를 하며, 연말에는 1,000명의 청년들이 모이는 집회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문의) 대표 이강우 집사 213-505-4292

##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 박희민 목사의 신간 발간 “아직 가장 좋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박희민 목사(새생명선교회·KCM USA 이사장)의 새 책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이 최근 출간됐다. “이민교회 영적 리더십의 귀감”이라고 불리는 박희민 목사가 “선교사로, 설교자로, 목회자로 걸어온 길”을 회고하고, 후배 목회자들이나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결코 은퇴가 없음을 보여주는 책이다.

2003년 나성영락교회 은퇴 후 후임목사를 위해 원로목사로 남지 않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 아름다운 은퇴의 모델이 된 박희민 목사는 바울의 표현을 빌려 “나의 나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특별히 은퇴 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많은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후원해 주신 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감사드리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간절한 심정 때문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사랑의 빛을 갠으려는 생각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퇴 후에도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내게 되었다”고 발간 동기를 술회했다.

또 “은퇴 후 무료로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말고 아직 가장 좋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제1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미주국민일보에 기고했던 칼럼들을 모은 것, 제2부 “창의적 선교”는 선교컨퍼런스에서 강의한 내용들, 그리고 제3부는 박희민 목사가 이끌고 있는 새생명선교회의 사역들을 정리한 것, 제4부 “박희민 목사 프로필”은 박 목사가 걸어온 발



자취를 되새겨 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어린 시절, 목회자로서의 소명, 결혼과 선교사로 헌신과 캐나다와 미국 목회, 은퇴 후의 사역과 가족 등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담겨있다.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 목사)는 추천사에서 “그의 리더십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종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송정명 목사(전 월드미션대학교 총장)는 “모세가 사역하는 동안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같이 더 큰 일을 감당하셔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으며, 강준민 목사(LA 새생명비전교회 담임)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는 이 책은 은퇴 후에 더욱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담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는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박 목사님의 삶과 리더십은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면서 일독을 권했다.

## 기쁜우리교회 가을 말씀잔치 열린다

글렌데일에 위치한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원로목사를 초청해 “주요수년 내에 부흥에 하옵소서” (합3:2)를 주제로 9월 7일(금)부터 9일(주일)까지 본당에서 가을 말씀잔치를 개최한다. 7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진정한 자아와 참된 사명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9월 30일에는 “930 예수 초청잔치”를 열어 한담을 은혜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율해의 표어를 따라,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자리인 이 잔치에 교인들은 이웃을 초청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잔치의 예배는 9월 30일 주일 10시 30분에 단 한번 드리지며 초청 잔치에 걸맞게 풍성한 식사와 김경진 담임목사의 저서 시리즈, 설교 CD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 기쁜우리교회는 6월24

일 전교인 야외예배에 이어, 초청대상자 신청서 배부, 릴레이 기도, 초청자 기도신청서 제출, 박종호 장로 간증 찬양집회, 바나나 사역훈련시작, 노방전도세미나, 이슬비 편지쓰기를 통해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이번 잔치의 일정 9월7일(금) 저녁7시-고난이 주는 축복 9월8일(토) 새벽6시-하나님을 아는 축복, 저녁7시-복음전도의 축복 9월9일(주일) 1부-3부-형제 화해의 축복 9월9일(주일) 저녁6시-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미용자격증 미용고급기술**  
 김인태  
 한국국가대표 아시아 챔피언 출신 강사 직강  
**QCA Beauty College**  
 T.213-232-3837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 고봉준 목사 초청 특별간증집회

연약함과 고통 중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교정 선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꼴통목사의 전도행전 1,2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화같은 이야기의’의 저자 주인공 고봉준 목사를 초청해 간증집회를 갖습니다.

**집회일정**

- 9월 9일(주일) **실만한 물가 교회(담임 정충일 목사) 오전 11:00**  
 4012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18
- 9월 12일(수) **엘에이 백송 교회(담임 김성식 목사) 오후 7:30**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 9월 14일(금) **엘에이 시티 교회(담임 써니김 목사) 오후 7:00**  
 4322 Wilshire Blvd, #310, Los Angeles, CA 90010
- 9월 16일(주일) **올리브나무 교회(담임 김창현 목사) 오전 11:00**  
 300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고봉준 목사**  
 약력  
 사마리아교정선교회 대표  
 아홉길사랑교회 협동목사  
 국내외 부흥회 2000회 이상 인도  
 법무부 교정위원  
 의정부교도소 종교위원

**집회문의 T:(213)739-0403**

한인기독교상담소 칼럼

불안- 불편한, 그러나 필요한 감정

한국의 역사는 불안함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1900년부터만 보더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아와 나라를 잃어 불안했고, 북한과의 분단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불안 속에서 살았으며, 독재정권 아래에서 민주화를 꿈꾸며 항쟁과 투쟁으로 불안해했고, IMF를 통한 경제적인 불안, 삼풍 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침몰, 제천 화재사고 등 여러 위험과 공포, 불안을 끊임없이 겪어 왔다.



왕은정 상담원  
한인기독교상담소

완벽성이 깨어지는 순간 더욱 큰 불안을 일으키게 된다.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저마다 각각 다르다. 분명한 것은 매우 불편한 감정이라는 것이다. 불안한 감정이 오래가면 우울감이 자리를 잡게 되거나, 무기력증이 생기기도 한다. 극도의 불안감은 불안장애로 연결되기도 하며, 공황장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작은 불안함 역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감정임은 틀림없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통해 불안함을 없애기보다, 상황을 피하고 묻어두어 불안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통한 불안함은 언제든지 다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반대로 안수기도, 축사와 같은 경험을 통해 불안함을 떨쳐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가 사라질지 바라는 행위일 뿐이다.

성경에는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 불안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첫째로 모세가 있다. 불안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잃지 않은 자신 때문에 불안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그러한 결단력으로 광야로 도망가서 살아야 했으나, 그의 확고한 정체성과 광야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광야 길을 잘 이끌 수 있었다. 모세의 삶은 불안한 환경의 연속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환경을 모세를 사용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셨다.

요셉은 어떠한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갔을 뿐 아니라, 주인의 오히려 인해 감옥생활까지 해야 했던 요셉은 주인의 집안 살림을 도맡아 꾸리고, 감옥 안에서 여러 죄인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 총리

의 일까지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특별히 시편은 다윗의 고통, 슬픔, 절절한 마음을 담은 시구절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시편은 그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던 절규와 기도, 고백들로 가득하다. 다윗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다. 즐거울 때나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와 분노했을 때 등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을 찾았다.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고백은 어떠한가? 욥은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세 친구와 엘리후와의 대화에서도, 아내의 저주 속에서도 결단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상황을 축소하거나 감추지 않았고, 관철은 적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을 더하셨다.

성경에는 두려움, 걱정에 관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다. 그중 마태복음 6장 25-27절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공중의 새와 들에 백합화도 먹이고 키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 이는 종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니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라는 정죄의 무기로 사용되고는 한다. 하지만 불안은 하나님을 찾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는 초대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사람, 장소, 불특정한 무언가로부터 끊임없이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롬 8:28)을 고백하고, 불안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두려운 상황, 불안한 문제와 함께 이겨낼 힘과 지혜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 불안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더욱 건강한 평화, 참된 평화, 하나님과 상호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불안한 마음과 그 마음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신앙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고, 싸울 때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승리의 용사가 될 수 있다.

문의) 한인기독교상담소 (kaccla.net) 전화) 213-738-6930 (LA) 657-529-1133 (OC)

“이것 저것 재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코너스톤교회, 박담회 목사 초청 세미나

하버시디에 위치한 코너스톤교회(담임목사 이종용)에서 18일, 19일 양일 동안 ‘주님의 시간’(In his time) 이란 주제로 박담회 목사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①땅에서 ②하늘에서 ③하늘과 땅 사이에서 ④근세에서 현대 ⑤르네상스 ⑥개혁의 선구자들 ⑦종교개혁 ⑧민음의 본질이란 소주제를 통해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고 21세기에 신앙인이 살아야 할 길을 제시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 없는 자연 환경에서 상업의 발달과 제국주의, 르네상스 등의 시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화 되어 왔는지를 역사별로 분류해 강의했다. 또 영어권 2세, 3세 어린 자녀와 중 고등학생도 공감하기 쉽도록 논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설명했다.

박 목사는 불교와 천주교의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를 비교해서 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논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것저것 따지거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가르침 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그는 이어 “마음을 열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분의 손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박목사는 기업에서 직원들



박담회 목사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그는 “세상에서 강의 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강조 한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2018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축복의 통로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담회 목사는 서울 온누리교회, 서울 새로운교회에서 사역했으며, 탈북 신학교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코너스톤 협동목사로 차세대 사역에 힘쓰고 있다.

헬비 권 기자

“빛을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  
은혜와평강교회, 지용수 목사 초청 부흥성회

은혜와평강교회(곽덕근 목사)는 오는 9월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주일에 걸쳐 “빛을 뿌리는 하나님 자녀”를 주제로 창원 양곡교회 지용수 담임목사를 초청해 부흥성회를 연다.

지용수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제 94회 총회장과 총회부흥전도단 단장을 역임했다. 집회는 14일(금) 오후 8시, 15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16일(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지용수 목사 (창원 양곡교회 담임)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를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질러한 실례 사정됩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칼라 작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만찬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TWITTER/@SCAVINO45

# 트럼프 대통령, 복음주의 지도자 1백명 백악관 초청 만찬

## “종교 자유 훼손하려는 공격은 끝났다”

백악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 1백명을 대상으로 초청 만찬을 베풀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국빈 초대 만찬’(state dinner)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복음주의 리더십 명예의 전당’에서 열렸다. 이날 만찬에는 프랭클린 그래함, 제임스 톨슨, 그레그 로리 등 유명 목회자들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조언해 준 수십명의 복음주의 목회자, 전도사 및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또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 국토안보부 장관 벤 카슨, 알렉스 아자르 보건복지부 비서관, 국제 종교 자유 협회 샘 브라운백 대사가 참석했다. 이 행사는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주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만찬 연설에서 “우리는 오늘 미국의 신앙, 가족, 자유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 지난 몇 년간 알고 있듯이, (이전) 정부는 종교 자유를 훼손하려 했지만 신앙 공동체에 대한 공격은 끝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언급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나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행정부가 어떤 단계를 거쳐왔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낙태 반대에서 어떤 승리를 했는지, 전 세계의 종교 박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보수주의자들의 지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지만 많은 것들을 돌려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참석된 목회자 중 한 명은 “실제로 당신이 약속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셨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만찬 행사 전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대형교회 목회자인 잭 그래함, 프랭클린 그래함, 제리 팔웰 주니어, 플로리다 TV 전도사 폴라 화이트(Paula White) 등 소수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났다. 이 모임에 대해 텍사스 주 플라노에 있는 프리스톤 우드 침례교회의 선임 목사이자 전 남침례회 대표 잭 그래함은 C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중 모임에 참석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건넸다”면서 “35분에서 40분 정도 진행된 이 모임에서 목회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8개월 동안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해왔던 일들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래함 목사는 이 회의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사랑을 표현했다. 그곳에는 많은 설교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현존하셨다고 믿는다. 대통령과 성경구절을 나누었고 진리와 사랑이 전달되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2018년 중간 선거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오면 트럼프의 첫 18개월 동안의 행보를 위태로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래함 목사는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까지) 우리의 조심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며,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무릎에 달려있다”면서 “대통령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찬에는 지난 여름 남침례회 회장으로 선출된 J.D.그리어 목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평소 교단이 정치적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에 그의 이번 백악관 참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그리어 목사는 트위터에서 “모든 결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어 여러 지도자들과 상의했다. 다른 지도자들의 견해를 듣고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학위수여식 이후 단체 사진

# 미션크리스천대학교(MCU) 학위수여식 및 목사안수식 열려

미션크리스천대학교 및 대학원(총장 윤요한 박사)은 지난 27일 오후 6시 30분에 대학교 강당에서 졸업 및 학위수여식과 맹혼 목사 안수 임직예배를 거행했다. 학장 정윤 박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식은 조영제 박사, 김영민 박사, 류창식 박사, 문대룡 박사, 이천선 박사, 엄상현 박사 등 본 대학교 교수진과 조창훈 목사(실로암교회 담임), 김경욱 목사(MCU동문회장) 등이 주요 순서를 담당했다. MCU 남성 찬양단의 찬양에 이어, 총장 윤요한 박사는 ‘가장 고상한 소원(빌1:20-

21)’이란 제하의 설교에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고상한 소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 담대하게 사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설 것을 역설했다. 이날 임직 받은 맹혼 목사에게는 M.Div. 학위와 총장상패가 수여되었고, 대학원 졸업생 다니엘 리에게는 Graduate Diploma(기독교 교육학 전공)와 학장상패가 수여되었다.

이날 예식은 MCU합창단의 찬양과 맹혼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으며 행사암교회에서 협찬했다.

# “갈 곳 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세요”

갈 곳 없는 한인이나 아시안계 위탁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는 최근 LA 카운티에 이어 오렌지 카운티 주정부에서도 위탁가정 에이전시(Foster Family Agency·FFA)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내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위탁가정 에이전시는 한인가정상담소가 유일하다. 앞으로 한인 가정상담소는 LA 지역뿐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한인 위탁가정을 한국어로 모집, 교육하는 것은 물론 직접 위탁아들과 위탁가정을 연계하고 관리, 지원하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한인가정상담소는 오는 10월 13일, 27일 두 차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등지찾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위탁가정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 조건과 필요한 교육 과정,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13일 미주복음방송의 장소 후원으로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배우 신애라씨가 입양경험에 대하여 강연을 할 예정이다.

카니 정 조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는 미국 내 유일하게 한국어로 한인 위탁가정을 교육하는 위탁가정 에이전시(FFA)이며, 이번 오렌지 카운티에서 처음 개최하는 위탁가정 오리엔테이션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라고 말했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참석을 원하면 예약해야 한다.

문의) 213-235-4843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를 할까?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Pueño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푸르기 탐구생활 이상호 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미디어벽

Easter SUNDAY 예수, 부활하셨네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78>

### 예루살렘에서 올려드린 48시간 연속 중보기도 예배(1)

필자의 교회는 어느 선교단체로 단기선교를 떠나든지 아니면 교회 자체의 선교를 가든지 선교지에 가기 전 주일에 꼭 선교 파송식을 갖는다. 온 교우가 한마음으로 선교를 떠나는 교우들을 축복하고 함께 중보하기로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고 파송한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선교에서 돌아 온 후에는 선교에 참여했던 교우들의 선교간증 예배를 반드시 드린다. 필자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우들은 선교 간증 듣기를 참으로 좋아한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부흥성회이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며 영혼들 만났던 이야기들을 들으며 같이 웃고, 때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안타까와 하며 그 현장과 영혼들을 올려드리며 통성중보기도를 할 때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한다.

대한 가장 확실한 순종 중에 하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렇다. 열방을 향해 성도들이 마음을 갖고 그 땅의 이방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성경은 말씀한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목회는 그렇게 말씀을 외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그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어렵게 선교지를 다녀 오면 믿음생활이 달라진다. 더욱 생명력 있게, 더욱 열정적으로, 더욱 사랑하며, 더욱 기도의 능력이 강해지며 성장한다. 이 놀라운 영적 변화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기를 필자는 진심으로 기원한다

필자에게 있어 목회의 불림은 이것이다. 우리 교우들이 선교 현장을 밟는 것이다. 우리 교우들은 모두가 다 자신이 평생 기도할 입양종족(나라)들이 있다. 교우들은 가급적 그들의 품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훈련한 후에 각 나라들로 간다.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가급적 전 교우가 일 년에 한 번씩은 단기선교라도 가려고 애를 쓴다. 선교지에 도착하면 우선 그 지역 전문 선교사님들을 통해 안내와 교육을 받으며 준비를 한 후 영혼들에게로 들어간다. 조심해야 하고, 담대해야 한다. 올해도 우리 교우들은 터키로, 이집트로, 이라크로, 요르단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순회했다.

지난 3주간 우리 교우들은 현장 중보 단기선교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다녀왔다. 이스라엘에 모인 전 미주의 60여 명의 중보기도팀들과 연합해 예루살렘에서 48시간 연속 중보기도회를 가졌다. 그 모임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의 다민족 기도자 약 200여 명이 48시간 동안 함께 기도했다. 교우들은 이 중보기도 모임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했다고 고백한다. 굳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과 반목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합과 용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강력한 은총을 느꼈다고 전한다. 교우들은 다른 어느 때의 선교보다도 이번 예루살렘에서의 48시간 연속기도회와 현장 중보 선교사역이 좋았다 한다.

EM 대학 청년들은 여름방학 2개월 동안 전미주 대장정팀에 합류한다. 미주의 동부, 중부, 서부를 3개 조로 나누어 도시와 마을들을 찾아 다니며 전도하고 선교 비전을 나누고 다민족들과 연합해 예배를 드린다. 이때 다민족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세계 영적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 엄청난 비전사역이다.

자랑하고 뽐내려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음주에 계속)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준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 학생이 가장 행복한 네덜란드의 행복 교육

네덜란드는 행복 선진국입니다. 다양한 행복 평가에서 네덜란드는 늘 수위를 차지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해수면보다 낮은 국토, 풍차, 툼립, 축구 그리고 개혁주의 기독교 등으로 알려진 나라입니다만 사실은 청소년의 행복도나 노인의 행복도가 세계 최상인 행복 선진국입니다. 네덜란드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네덜란드는 아동 혹은 청소년의 행복도가 세계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글들을 쉽게 만납니다. 또 네덜란드는 노인의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소개됩니다. 아동기가 행복하고 노년기가 행복한 나라의 행복 비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금번 호에는 네덜란드의 행복한 교육 비밀을 살피고 다음 호에는 네덜란드 노인들의 행복 비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이유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교육 목표가 행복입니다. 아동과 학생의 행복을 막는 속제도 없습니다. 교육과정 중에 무리한 부담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네덜란드 교육제도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로 행복한 네덜란드 청소년의 행복 비결은 네덜란드 교육은 국가가 주관하는데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모든 교육이 국가 기관에서 이뤄집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함유합니다. 우선 사교육이 불필요한 공교육이라는 의미입니다. 국민들이 공교육에 만족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성숙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네덜란드 공교육은 기회 균등을 보장합니다. 네덜란드 국가가 보장하는 균등은 종합적입니다. 네덜란드는 교육 기회의 균등, 교육 후 기회의 균등, 은퇴 이후의 노년 삶의 균등을 보장합니다. 균등한 미래의 보장은 학생이나 학부모를 너그럽게 합니다. 교육 결과가 균등하니 아동다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교육을 주도하면서 학교와 사회의 행복을 가꾸고 있습니다.

셋째로 네덜란드 청소년의 행복은 네덜란드 교육이 건전한 사회 육

성을 지향하는데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진정한 행복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네덜란드는 사회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사회적 출세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네덜란드는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가정에서도 신뢰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사회의 신뢰도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 근거합니다. 네덜란드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신뢰, 배려, 존중 등의 기초가 없는 사회는 행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네덜란드는 든든한 기초 위에 행복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로 일컬어지는 장로교가 네덜란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 등 많은 목사들이 수상을 지냈습니다. 목사나 신학자들이 정치지도자로 활약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와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였지만 여전히 기독교 문화가 국가 시스템과 사회와 학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전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가 지금도 CRC 교단 등에 남아 있다. 네덜란드의 행복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개혁주의자들의 피맺힌 외침들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하는 네덜란드가 각종 사회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와 마음에서 자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 핍박에도 불구하고 에리트레아 교회는 계속 성장

에리트레아 정부가 지난달 35명의 기독교인을 석방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는 "친(親)기독교 성향의 이웃인 에티오피아와의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으로 계산된 결과"로 분석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나라 중 하나인 에리트레아는 지난 7월 17일 11명의 여성과 24명의 남성 등 35명의 기독교인을 석방시켰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속 폴리 대표는 "어떤 기독교인 수감자든지 석방된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최근 진행된 이 석방은 에리트레아의 억압적인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VOM 사역 파트너에 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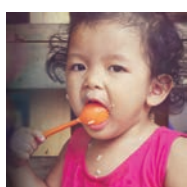
면, 풀려난 35명의 기독교인은 에리트레아 교회의 주요 리더가 아닌 젊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아직도 이보다 훨씬 많은 수백 명의 기독교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있으며, 이들을 위한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에리트레아에는 수많은 복음주의 목사가 공식 기소와 재판 없이 지하 감옥이나 마이 세르와(Mai Serwa) 포로수용소의 선적 컨테이너에 감금되어 있다. 사막 한가운데 놓인 철제 선적 컨테이너 감옥은 낮에는 극도의 더위가, 밤에는 극도의 추위가 엄습하는 극한의 환경으로 악명이 높다. 에리트레아 감옥에 갇혔던 기독교인들과 함께 사역했던 폴리 대표는 "아주 오랫동안 고문을 당한 수감자들이 풀려나면 마비

등 평생 불구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방된 이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고문의 상처로 죽거나 처형당하는 수감자들도 많다.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에리트레아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폴리 대표는 "모든 에리트레아 기독교인은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미등록된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진술서에 서명하면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을 지키며 감옥에 남아 있기를 선택한다"고 말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14년 이상 장기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신실한 에리트레아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요청했다.

이지희 기자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 베데스다를 넘어서

요한복음 5:1~9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요한복음 5: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시니라 2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됨이라 5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나고자 하느냐 7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나이다 8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과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원 얻을 대상들이 되게 하시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행하는 것으로 육체에 있는 할례의 표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실 대상이라는 표시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정신적으로 생활에 지나친 중압감 같은 제제를 가한다는 생각으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했고 부담스럽게 느껴왔던게 사실입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었습니다. 몽학이란 깨우쳐서 배우게 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돌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문

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는 사람이 다니는 문이 있고 가축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양을 사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주며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안에는 양을 파는 양시장이 있었는데 양은 사람들이 다니는 문으로 다니지 않고 따로 양이 드는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안 양문 안에 들어서면 조그만 저수지가 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은 도로 양쪽을 기둥을 세워 지붕을 이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루살렘 바깥 뜰에도 이런 행각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질문을 하면 가르쳐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못가 행각아래 온갖 병자들이 누워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베데스다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증거가 베데스다의 역사였습니다.

본문 4절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용천이라 합니다. 솟아나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데스다 못에 가셨습니다.

그곳 행각아래에는 많은 병자들이 행운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병을 앓은 지 38년이나 된 사람을 보시고 낫기를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의 대답은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고 합니다. 이 병

자는 상당히 대인 의존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 병이 낫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이끌어 주어야 가까스로 믿어보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은혜받기 위한 열심을 갖지 못합니다. 의지도 결단도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무언가를 기대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이런 태도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어야겠다고 깨달으면 열심히 기도회도 참석하고 예배시간마다 빠짐없이 참여하며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해결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타인 의존적 신앙은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병자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하십니다. 이전 베데스다 못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그 병자는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말씀의 권능으로 고치신 이후 천사가 내려와 베데스다 연못을 뒤집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시간부터 율법시대의 은혜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이런 기적을 삼아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데스다 연못의 역할은 예수님과 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유대인과 온 지

구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영적 구원과 육체의 치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이후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게 된 동기는 죄값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인생의 죄 값으로 38년 동안 죽지 못해 병고에 시달리며 앓아왔던 그 질병을 말씀의 권능으로 고쳐 주셨다는 것은 그 인생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거두어 정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와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목은 질병을 치료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죄 값으로 시달리는 복잡한 문제들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베데스다 못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베풀어 오셨던 자비의 치료는 이제 예수님과 교체시키면서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통하여 영육간의 구원도 치유도, 회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믿어지는 그분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영육간에 구원을 받고 치료도 받고 해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의존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직접 예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즉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담임목사 청빙

캘리포니아주 LA동부에 위치한 **인랜드교회**는 미국장로교(PCA) 한인 서남노회 소속 교회로 1984년 8월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녀들을 포함한 2000여명의 교인들이 예배공동체, 훈련공동체, 선교공동체로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제 5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 미국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한 분
- 5년 이상 미국에서 Full-time으로 목회한 분
- 미국장로교(PCA) 한인 서남노회 회원 혹은 노회 가입이 가능한 분
- 이중문화권(한국, 미국)에 익숙한 분
-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 보유한 분

### 제출 서류

- 본교회 지원서 작성 (지원서는 교회 홈페이지 www.inlandchurch.org 에서 다운로드)
-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 목회 계획서(목회 비전과 계획)
- 목회 안수 증명서, 최종 졸업 및 학위 증명서
- 1년 이내의 한국어 설교 2편 동영상 (DVD/오디오파일도 가능) 및 영어설교 1편 (Optional)
- 한글 본인 소개서 (영문 소개서 - Optional): 신앙고백, 목회경험, 성장배경, 가족소개, 소명
- 3명의 추천서(추천서는 추천인이 본교회 searchcommittee@inlandchurch.org로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Attn: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 제출 마감

- 2018년 9월 30일(주일)까지 마감합니다.
- \* 제출 방법: 이메일 (PDF로 작성) 또는 우편
-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인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프로지의 특별함은

###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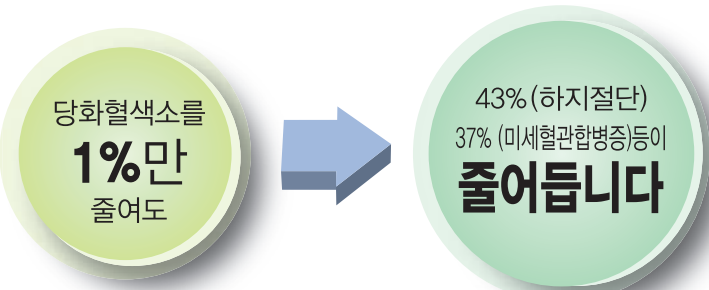
##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 당화혈색소(HbA1c)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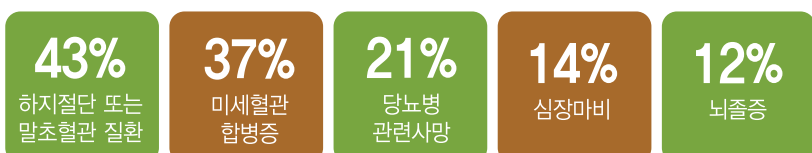
##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스미스 주립교도소 제9차 연중집회

## 스미스주립교도소, 꾸준한 선교로 결실 맺어

Global Mission Alliance가 주관하는 스미스주립교도소 제9차 연중집회를 통해 24명의 재소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번 연중집회에는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중앙장로교회, 한빛장로교회, 그레이스장로교회, 잭슨빌 한인장로교회, 벅헤드침례교회 그리고 Full Gospel Tabernacle Church of God 등 7개 교회에서 7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펼쳤으며 에이샤 브룩리를 애플랜드 노회 총무가 말씀을 전했다.

집회에서는 한인교도소사역팀이 꾸준히 검정고시를 지지하고 하고 후원한 결과 스미스교도소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서 54명의 재소자들이 4년제 대학생들이 되었다는 소식도 전달됐다. 스미스주립교도소는 오는 9월 9~14일 고등학교검정고시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10월에는 중앙장로교회에서 세례식 및 성찬식을 집례한다. 또 12월 12~14일에는 성탄 예배 및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

앤더슨 김 기자



시애틀 그리심교회 전창민 목사

## 시애틀 그리심교회, 벨뷰 예담교회 통합

전창민 목사, 담임 목사로 이끌 것

시애틀 그리심교회(담임 전창민 목사)와 벨뷰 예담교회(담임 이도형 목사)가 교회를 통합했다. 예담교회 이도형 목사가 시카고한인서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것이 두 교회가 통합하게 된 배경이 됐다. 교회 통합 후에는 전창민 목사가 담임 목사로 교회를 이끌게 된다. 시애틀 그리심교회와 벨뷰 예담교회는 교회 통합을 위해 7월 셋째 주부터 벨뷰 예담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왔으며, 오는 26일 오후 1시 10분 벨뷰예담교회에서 연합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교회 통합 후에는 벨뷰 예담교회 예배당을 사용할 계획이다. 전창민 목사는 “두 교회가 가진 장점

로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며 교회를 튼튼히 할 계획”이라며 “영적 예배에 더욱 힘쓰고 제자양육, 선교의 헌신에 목회 방향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어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친절함으로 맞아준 예담교회 성도들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해준 그리심교회 성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통합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한 일들을 더욱 잘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애틀 그리심교회, 벨뷰 예담교회 통합예배 일시: 8월 26일 오후 1시 10분 장소: 벨뷰예담교회 주소: 15005 SE 38th st, Bellevue WA 98006



전 세계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워싱턴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 100차 워싱턴 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워싱턴주 지역교회의 연합과 부흥, 회개를 외치며 선교지의 복음 전파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워싱턴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대표원 호 목사)가 오는 8월 26일(주일) 오후 6시 30분, 웨드럴웨이 갈보리교회에서 100차 기도성회를 개최했다.

2008년 10월 갈보리교회와 새교회, 시애틀 중앙침례교회 등 워싱턴주 지역 교회가 교회 연합과 부흥, 회개를 외치며 일어난 워싱턴 주 열방을 품는 기도 성회는 지속적인 기도 운동을 이어가며 워싱턴 주 각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으로 확대됐으며 기도의 불을 붙이고 있다.

# 교회는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곳이다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침례교회 / 토요일-17와 비몬트 크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2세대를 위한,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역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금부 오후 7:30  
토요일 아침예배 오전 8:00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아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습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향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 (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여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전야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도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382-7240 Email: laseh@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메일 받기교회 오후 9시

**박은중 담임목사**

**에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에델리안예배 (소매일)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틴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틴노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세(Calling), 고교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순환 담임목사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장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공부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로 새음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11:00  
2부예배 오전 9:30 영어, 유치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한여청년부 오후 2:15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찬양회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찬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0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1부예배(토)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토)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의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라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어린이) 오후 1:30  
이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net.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도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별리채목 Valley Chapel MP재목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63-5887 Tel: (223) 837-09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박람회 개막 행사가 서울 신라스테이 마포에서 개최됐다.

## “한국 넘어, 아시아 크리스천 출판인들 교류의 장으로”

### 2018년 한국기독교저작권박람회 개최

2018년 한국기독교저작권박람회(Korea Christian Rights Fair, 이하 KCRF)가 8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신라스테이 마포에서 개최됐다.

기독교출판협회(회장 방주석 장로, 이하 기출협) 주최로 지난 2007년부터 12년째 열리고 있는 KCRF는 국내 기독교 출판사들에게 해외 양서 발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기출협은 통역을 비롯한 여러 서비스를 무료로 회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출협은 박람회를 위해 해외 기독교 출판사와 에이전트들을 초청했다. 올해도 베이커(Baker Publishing Group), 틴데일(Tyndale Publishers), 브뤼케(Bruke Agency), 프레드 루디(Fred Rudy Association), Mosaic Rights Management, AnnieBluth, Josh McDowell Ministry, Faithlife Corporation 등과, 국내 저작권 중개사인 알맹 2(Rmaeng2)가 참가했다. 박람회 전 개막식에서는 박종태 총무이사(비전북) 사회로 방주석 회장의 인사말과 황성연 부회장(늘봄기회)의 기도로 진행됐다. 박종태 이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시면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귀한 손님인 것 같다”고 덕담했다.

방주석 회장은 “올해로 박람회가 12회째를 맞았다. 이제 KCRF가 한국 기독교 시장을 넘어, 아시아 크리스천들의 교류

의 장이 될 때가 왔다”며 “모든 분들과 이러한 비전을 품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 회장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은 사업을 넘어 소명이라 생각한다”며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틀간 많은 만남들에서 기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CRF는 저작권을 사고 파는 상업적 통로를 넘어, 한국 기독교 출판사들과 영미와 독일 등 전 세계 기독교 출판사들 간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고 복음을 전하는 문서선교 사역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람회장에서 만난 틴데일 출판사 조지 로치(George Roach)는 “영미권 기독교 출판은 ‘패밀리 크리스천’ 등 오프라인 기독교 서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다소 힘들어지고 있다”며 “책들은 대부분 아마존을 비롯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틴데일 출판사의 경우 올해 NLT 성경이나 스포츠 코치의 간증류 서적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내년 초 미식축구 슈퍼볼 우승 감독인 토니 던지(Tony Dungy) 「The Soul of a Team」도 나올 예정이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할 만한 도서로는 전 HP CEO였던 칼리 피오리나(Carly Fiorina)의 「Find Your Way」를 꼽았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명을 따른 삶의 여정을 담고 있다. 이대용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기반 인권정책 비상대책 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 기독교 등 500여 단체

### ‘NAP 독소조항 반대’ 비대위 출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확산 등 정책과 싸울 것”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500여 단체가 참여한 ‘국민기반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민위) 출범식 및 제1차 토론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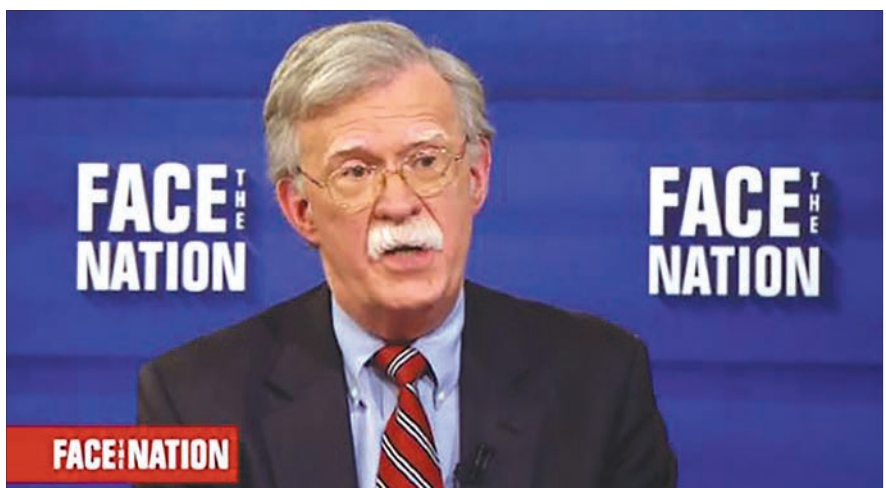
먼저 국민위와 함께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청소년 문제, 건강에 있어 인권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동성간 성 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률이 약 91%에 달함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인권위원장 후보를 비판했고,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많은 의견 모아달라”고 전했다. 자리에 함께한 전계현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는 “국민을 무시하거나 기만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한 이야기를 기억한다. 세월이 흐른 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이 됐다”고 비판하며 “저를 비롯해 한국교회 연합기관, 교단, 교단장은 청와대에 인권 정책의 독소조항의 위험성을 전달했다. 이것은 창조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말했다. 이해훈 의원(바른미래당)은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처벌하고 억압하는 게 아

니다. 그들을 위해 정확한 과학적 사실과 동성애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알려주는 게 국민과 정부를 해야 할 일”이라며 이를 막는 NAP에 반대했다.

또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알면서도 절대 듣지 않는 정부와 싸워야 한다”고,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은 독재를 하고 국민의 정신을 규제하고 억압한다. 생각에 반하는 사람은 적폐, 차별이라고 믿어서 법적 처벌을 하려 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전체주의”라며 “진정한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전했다. 출범메시지를 전한 소강석 목사(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상임회장,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대표회장)는 노예 및 흑인의 인권을 위해 활동했던 윌버 포스, 마틴 루터킹 이야기를 전하며 “인권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인권은 윤리와 도덕에 기초해야 하고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차별하지 않고 손 잡고 사는 사회를 이루어야 하는데 다수의 인권을 묵살하고 특정 표현을 억압하는 이견 말이 안 된다”며 NAP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해훈 의원(바른미래당)은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처벌하고 억압하는 게 아





존 볼튼 국가안보회의의 보좌관. ©CBS 방송화면 캡처

### 존 볼튼 “브린슨 목사 석방하면 터키 위기는 즉각 해결”

브린슨 목사 석방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

미국이 “카타르의 현금 투입이 터키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터키가 구금 중인 미국인 목사를 즉각 석방할 경우, 환율 위기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존 볼튼(John Bolto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영국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터키 정부가 브린슨 목사를 석방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토(NATO) 동맹국으로서 즉각 올바른 행동에 나서고 조건없이 브린슨

목사를 석방한다면 이 사태는 즉시 종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터키의 NATO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터키 정부는 지난 2016년 반체제 운동의 배후로 미국인 앤드류 브린슨 목사를 지목하고 그를 체포했다.

미국이 브린슨 목사의 구금과 관련해 터키를 상대로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터키 리라화는 끝없이 폭락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 스코틀랜드 초등학교 학부모들 성중립 화장실 설치에 우려



성중립 화장실의 모습(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스코틀랜드 이스트레프루셔(East Renfrewshire) 주에서 초등학교 내에 새롭게 설치된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 학부모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무소속인 데이비드 맥도날드(David Macdonald) 의원은 지난주 헤럴드 스코틀랜드와의 인터뷰에서 “학기가 시작할 후,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우려의 표하는 학부모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스트레프루셔 주에 편지를 보내 지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케롤 사이드 앤 브레이드바 초등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일부 학부모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에 우려를 표시하고 분노했다. 특별히 사춘기를 앞둔 딸을 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케롤

사이드 앤 브레이드바 초등학교 화장실은 남성용 소변기를 없애고 바닥부터 천정까지 가리는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다행히 학교 안에는 여전히 남녀 칸이 구별된 화장실이 있다.

지역 학부모들은 스코티시 선(Scottish Su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 어떤 상담도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맥도날드 의원은 페이지에는 찬반 의견이 많이 달렸다. 헤럴드 스코틀랜드에 따르면, 이스트레프루셔 주의회는 이같은 변화가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의회 대변인은 “개별 학교들은 이미 신청된 모든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이 같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학부모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 美 아칸소주 의사당 앞 ‘사탄 동상’ 등장 심계명비 설립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

최근 미국 아칸소주 의사당 앞에 2.4m 높이의 ‘바포멧’(Baphomet) 동상이 등장했다. 바포멧은 유럽의 중세 시대부터 사탄의 대표적 형상으로 여겨져 왔다.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사탄의 성전’(Satanic Temple) 측은 아칸소주 의사당 앞에 심계명비를 세운 것에 대한 대응으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 이 같은 동상을 세우고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사탄주의자와 무신론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사탄의 성전 공동설립자 루시안 그리브스는 “아칸소의 선량한 시민과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분들께 바포멧을 선물하겠다”면서 “이 동상은 다원성과 법적 평등, 관용, 자유로운 연구와 양심의 자유 등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제이슨 레이퍼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법에 따라 작년 아칸소주 의사당 앞에 심계명비가 설치된 이후, 이들은 언론·출판·종교의 자유를 천명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사탄 동상도 설치해달라고 요

구해 왔다. 심계명 설치와 관련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2년 오클라호마주 의회가 의사당 앞에 심계명비를 설치했을 때에도 사탄의 성전을 비롯한 각종 단체들이 자신들의 상징물도 세워달라고 반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공동 장소에 특정 종교의 상징물을 세우는 것은 수정헌법 1조의 종교분리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해 결국 2015년 오클라호마주 최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14년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조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뒤 미국 내 곳곳에서 종교적 기쁨물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미네소타주의 벨 플레인 참전용사 기념 공원에서 심계명과 성경 앞에 무릎 꿇는 군인 동상이 지난해 철거됐다. 같은 장소에 사탄 기념관이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 O.C./앨버진 지역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에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대학연예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오전 11:00 밑셀복음사별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교회(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 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생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무분별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n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사바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현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대학연예부 오후 2:00

**앨버진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월-일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1:30(월-일)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월-일) 영어

**앨버진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카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영광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c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적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uon@hanmail.net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훈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청양예배 오후 7시(수) 재자생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토) 새벽기도회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명을 입으라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OSEPH SU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first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E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교일보, FHM미션

##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6~7살 1~2명 모집) 초보가능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 300년 전에 예언된 요시아의 개혁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우리 이성(理性)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산물입니다. 예언은 그것이 성취되어야 진정한 예언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수많은 점술가의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는 것은 확률의 문제이지 예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언(prophesy)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무슨 미래 사건의 예측(prediction)만을 담은 예언의 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자가 나오고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預言, telling-forth)이 전체 성경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10% 미래에 관한 예측도 사사로운 일에 대한 점괘가 아니라의도를 가진 "예측" 혹은 "예언"(豫測, 豫言, foretelling)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교회의 생성과 발전과 완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출현에 대한 예언(사 45:1-3)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기원전 690년경에 예언되었는데, 약 150년 후에 실제로 역사에 성취됩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도 세상에 태어나기 300년 전에 성경이 예언을 하

를 모두 적절하게 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산당의 제사 드리는 곳을 모두 파괴시킵니다. 그는 열심을 가지고 북쪽 변역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더럽혔던 우상을 부수고, 가루를 만들고, 우상송배를 하던 제사장의 묘소를 파내어, 시체를 태우고 제단을 폐허로 만듭니다. 그 일을 하던 중에 한 제사장의 무덤과 비석을 보고 그것의 정체를 요시아가 몰으니, 그 성읍 사람들이 바로 요시아에 대하여 300년 전에 예언을 한 유다 출신 선지자의 묘소라 알려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 요시아의 사역이 이미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기록된 것입니다. 요시아의 생각과 결단과 성취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행동을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성도의 책임과 행동과 참여를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같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대상자 VIP를 찾아서 전하고 구하여 인도함을 우리의 참여로 이루십니다.

## 영성없는 신앙은 무기력할 뿐이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 과속을 하며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한참 달리고 있는데 단속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 재빠르게 속도를 줄였는데, 자신의 차가 지나가자 단속 카메라가 '찰칵' 하며 촬영음을 내내리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은 속도를 기준 이하로 낮추었는데 카메라에 왜 찍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속도를 낮춘 다음, 카메라가 있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단속 카메라에 자신의 차가 또 찍히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속도를 최대한 낮춘 다음 그 앞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또 '찰칵'하고 자신의 차가 찍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철저하게 따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이 사람에게 고지서 석장이 날아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이 우스개 소리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을 감시하는 자들이 보인 행동은 '분노'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희롱, 구타, 언어폭력... 정말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그들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

하지만, 모든 힘 중의 최고의 힘은 '영력'입니다. 영력이란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성은 계발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안타까운 꿈을 꾸 적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인데 제가 지휘관으로 한 소대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적의 공격이 하도 치열해서 수류탄을 투척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군이 수류탄의 안전핀조차도 뽑지도 않고 투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안전핀을 뽑아서 던지라고 고함을 치다 잠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꿈의 아쉬움 속에 깊이 빠져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인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득 든 생각은 '실력'에 관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무서운 시대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있지만 그 무기를 다루는 능력이 부재한 것은 아닐지. 아마 성령님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부재의 모습을 나의 꿈을 통해 지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소유하신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영성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을 삶의 최고의 덕으로 삼읍시다.

## 등교하는 첫 날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사랑스런 막내딸이 긴 방학을 마치고 등교하는 첫날입니다. 옷을 차려입고, 가방을 둘러메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찡해집니다.


마치 시험에 나가는 선수 같은 느낌도 들고, 전투의 현장으로 뛰어든 여가는 병사 같기도 했습니다. 절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아침 먹는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린 딸을 능동하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배움의 민첩함을 더하여 주시며,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매사 하나님의 딸답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몰려옵니다. 아침 먹다 말고 부흥회의 은혜가 몰려오는 듯 해서, 북받치는 감정을 꼭꼭 누르고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천군천사 보내주시사 악한 세력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의 가치관을 지키며, 복의 근원되어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기쁨이 되는 딸이 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싹트고, 지난 날의 아픔과 실패도 잊고 새출발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동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자연스럽게 새 것을 향한 도전을 하게 합니다.


우리 베델도 새 학기를 곧 시작합니다. 가방을 메고 신나게 집을 나가는 우리 막내딸처럼 신앙의 동산으로 등교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새롭게 도전장을 내고 베델제자훈련 및 MIT, 생활강좌 등 뛰어드는 베델식구들을 위해 저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당백 일당천의 강한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개신장군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옵소서. 훈련 중 같이 나누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빠짐 없이 응답되어 신나는 신앙의 순례길을 씩씩하게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등교의 복을 누리는 베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가을 맞이 고국일주 여행**

www.kaarp.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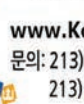

그리운 고국으로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모시겠습니다.



**일 정**

- 고국방문 7박8일 한국일정 (10/6-10/13) \$1,140 + 항공료 (특급호텔, 식사, 가이드팁 포함)
- 옴션 베트남 3박5일 베트남일정 (10/2-10/6) 고국+ \$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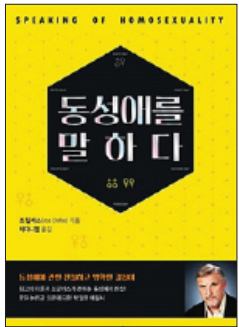
www.KorusTour.com  
문의: 213) 503-6196 계시카 213) 842-7079 JAY LUM

# “동성애자들과 대화하기 위한 7가지 법칙”

## 하다니엘 목사, 탈동성애자들 저서 3권 번역 발간

‘동성애의 진실’을 알려주는 저서들 3권이 잇따라 발간됐다. 이 책들은 동성애를 직접 경험한 탈동성애자들이 집필했으며, 하다니엘 목사(건전신앙수호연대 대표, 사자교회)가 번역해 소개했다.



**동성애를 말하다**  
조 달라스  
하늘물고기 | 316쪽

가 제시하는 ‘소통의 법칙’ 7가지는 ①명확하게 말하라 ②적절하게 말하라 ③공감하며 말하라 ④진리를 인정하라 ⑤가능성을 인정하라 ⑥기독교인들의 변명을 보라 ⑦주제 전환을 바로잡아라 등이다.

이에 대해 하다니엘牧사는 “우리 가까이에도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다. 주변 친구나 교회 성도들이 성 정체성 고민으로 상담해올 때, 일종의 솔루션과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 목사는 “교회는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해야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배제하려 해선 안 되지 않겠나”며 “달라스 목사의 책은 선교적 관점에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하며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성교육**  
조 달라스  
하늘물고기 | 74쪽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5단계**

조 달라스의 또 다른 책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성교육>도 함께 번역돼 나왔다. 원제가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나는 5단계(5 Steps to Breaking Free From Porn)’로, 성 중독과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있는 남성들과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적 가이드’이다.

저자는 “포르노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죄이다. 포르노를 끊음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 문제의 근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포르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결, 일부일처제, 그리고 정결함과 관련된 법도를 위반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책은 포르노에 대한 고민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완전히 그 습관

을 끊어버리기 위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강조했다.

책에서 말하는 5단계는 ①접근성: 시작이 반이다 ②체계적인 교제: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 ③의식: 자기 자신을 알라 ④치유: 책임을 져라 ⑤기대: 경주는 언젠가 끝날 것이다 등이다.



**사랑 안에서 함께**  
데니스 저니건  
하늘물고기 | 115쪽

이 외에 <사랑 안에서 함께(Stand In Love)>는 지난 2016년 한국을 찾은 ‘약할 때 강한 되시네(you are my all in all)’의 작곡가이자 찬양인도자 데니스 저니건(Dennis Jernigan)의 작품이다.

한때 동성애자였던 저니건은 동성애자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현재 아내 멜린다와 자녀 9명을 낳고 탈동성애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데니스 저니건은 서문에서 “한때 저는 제 실패가 너무나 컸고 수치심이 너무 깊어, 결코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선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며 “그 분께서는 너무나도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한다.

저자는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명하셨나요?’, ‘동성애자들은 지옥에 가나요?’, ‘동성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성향과 정체성은 같나요?’, ‘변화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나요?’ 등의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한다.

저자는 ‘동성애자는 복음에 기초한 교회에서 인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교회 인도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한다’는 성경적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며 “디모데전서 3장 2절은 결혼이 남성과 여성 간에 이뤄짐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동성애자들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데니스 저니건의 스토리는 <싱 오버 미(Sing Over Me)>라는 영화로도 제작됐다.

**탈동성애-반동성애 운동, 함께 가야**

하다니엘 목사는 “탈동성애 운동은 반동성애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정상적으로 인식돼 반동성애 운동을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탈동성애만은 인권의 차원이기 때문에 막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 목사는 “탈동성애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상인들도 동성애자들에게 추행을 당하거나 성적으로 그릇된 경험을 할 경우 동성애에 빠져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바깥에서는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과 대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제3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비기독교인들은 본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중립적인데, 동성애자들이 피해자이자 소수자인 것처럼 보이면 교회는 제3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교회는 탈동성애 운동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고 손을 잡아주는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러므로 탈동성애 운동과 반동성애 운동은 함께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성애자들과 대화하기 위한 7가지 법칙**

동성애에 대해 토론하려면 3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입장, 토론 의제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공정함과 사랑을 품겠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이 3가지의 확신이 서지 않으면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입장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동성애자들과 소통하는 7가지 법칙의 구체적 내용.

### ①명확하게 말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표준과 의미를 말할 때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전달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고전 14:8).

### ②적절하게 말하라

옳은 말이라도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잠 25:11). 직접적인 질문에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기 전 대화를 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 그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한 여러 문제

들 중 우선순위가 적절한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

### ③공감하며 말하라

공감이 중요한 것은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 ④진리를 인정하라

때로 우리는 대화 중에 드러나는 힘든 진실을 회피하고도 싶지만, 만약 그것이 진리라면 인정해야 할 대상이지 논박의 대상은 아니다. 주변에는 불편한 진실이 널려 있고, 우리가 성경적 입장을 취할 때 주눅들 필요는 없다.

### ⑤가능성을 인정하라

성경적 지침을 벗어나지 않고도 동성애의 유래에 관한 질문에 ‘가능하다’는 합리적 답변을 할 수 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동성애 커플이 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성애자도 사용하신다’, ‘기독교 친구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동성애 친구들이 많다’, 이 모든 주장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그런 주장들이 전통주의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다.

### ⑥기독교인들의 변명을 보라

기독교 지도자들은 동성애 커뮤니티에 공개 사과문을 올려왔다. 물론 의도는 좋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무례하거나 무신경하거나 심지어 증오가 섞인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일부일 뿐인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공정한가?

### ⑦주제 전환을 바로잡아라

‘당신의 태도는 동성애자들이 자살을 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혼을 했는지 압니까?’, ‘하지만 동성애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등의 지적은 마땅히 관심을 줄 만한 것이지만, 토론의 주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화제 전환 전술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좋은 지적이지만, 그건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제 말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죠’.

이대웅 기자

선교적 관점에서 그들과 대화하기 위하여

먼저 조 달라스(Joe Dallas)가 쓴 <동성애를 말하다(Speaking of Homosexuality)>는 동성애 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동성애자들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동성애자로서 한때 친동성애 운동에까지 나섰던 조 달라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동성애에서 벗어난 뒤 성적·관계적 중독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유 사역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옹호자들과의 논쟁에서 정확하고 성경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뿐 아니라, 동성애자들과 건설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하다니엘 목사는 “요즘 친동성애적 성경 해석이 득세하고 있는데, 책에서는 이를 어떻게 논리적이고 성경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설명하고 있다”며 “책을 읽으면 동성애자들의 어떤 논리에도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달라스 목사는 동성애에서 탈출한 뒤 친동성애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이후 동성애 경험자로서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고, 그 결과가 <동성애를 말하다>이다.

동성애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다가 대화하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동성애자들의 특징과 소통의 법칙, 지혜로운 대화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 예로 저자

# 숨겨진 20야드를 찾아드립니다

골프클럽의 성능 70%는 샤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휘텍골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名品 클럽을 가져 보세요!



세상에  
우적 하나  
...  
당신만의 위한 맞춤형클럽



영/업/시/간  
화요일~토요일  
10:00 am ~ 8:00 pm

미국 스펙의 R(Regular)는 아시안 스펙 S(Stiff)정도로 강하고 무겁습니다. 제조사마다 같은 강도도 스펙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샤프트의 강도를 알려면 Shaft Frequency C.P.M (1분 동안에 샤프트가 진동하는 수)을 측정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무게, 강도, 길이등 미국 스펙 골프채로 좋은 경기력 향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자신의 스펙을 찾으세요.

## Private Lesson

단기간 집중 골프스윙 완성  
스크린 통한 구질 분석, 자신의 스윙을 모니터로 보며 교정



## 휘텍골프 피팅 스튜디오



213.327.4080 / 213.315.5179  
3050 W. 7th St #101 Los Angeles, CA 90005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323)732-4669

VALERO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습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치질(항문하혈, 통증)  
 •독소제거, 혈관 청소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불임증 (자궁축, 하혈)  
 •TMJ 턱관절 장애

•우울증  
 •관절염, 다리 쥐 오름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만성두통, 요통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 암센터내 고려대 안암병원내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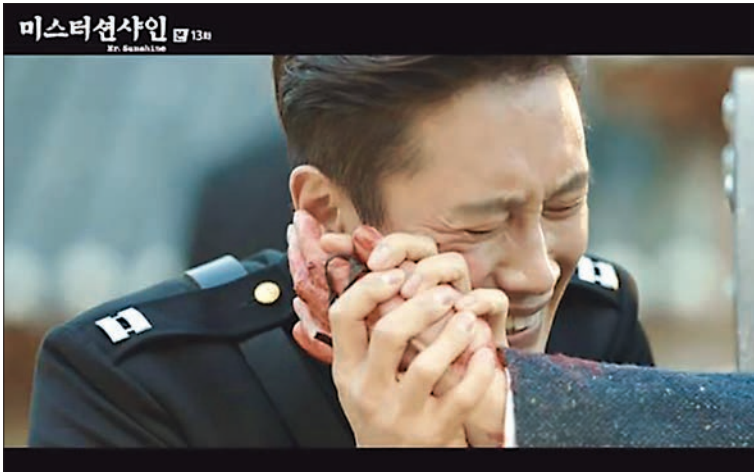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성	중성				알칼리성
3.5	6.0	7.0	8.5	9.0	9.5
					셀라케어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 ‘미스터 션샤인’의 진짜 주인공 ‘불꽃처럼’ 살다 간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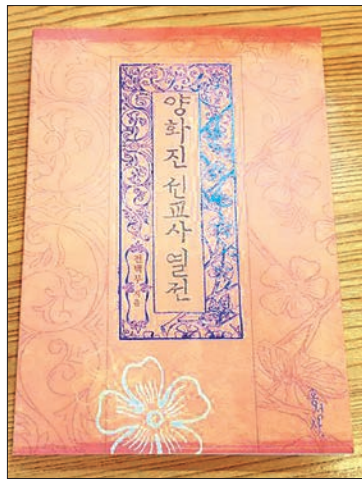
부모를 잃은 유진 초이(이병헌)가 아버지와 같았던 요셉 선교사의 죽음을 목격하고 오열하는 모습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는 ‘선교사’가 극의 주요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 종살이하던 주인공 ‘유진 초이(이병헌)’은 어린 시절 쫓기다 선교사 ‘요셉’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해병대 대위이자 미 공사관 영사대리로 고국에 돌아온다.

그러다 선교사가 의병활동을 도우려다 죽음을 당하자, 그를 은인으로 생각하던 주인공 유진은 진상을 파헤치면서 의병들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된다. 그런가 하면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던 시대, 여자 주인공 ‘고애신(김태리)’은 선교사가 세운 학당에서 여선교사로부터 영어를 배우게 된다. 이들 외에도 구동매(유연석), 김희성(변요한), 쿠도 하나(김민정), 이완익(김의성) 등이 등장해 구한말 조선의 생활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구한말 선교사들은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 같던 조선인들에게 등불 같은 존재였다. 왕인고종도 선교사들을 신뢰했고, 선교사들은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했다. 모처럼 대중매체에서 그 시대 기독교를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이 때, 구한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온 주요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을 책과 문헌, 영상 등으로 돌아보고자 한다.



오리 전택부 선생의 책 <양화진 선교사 열전>. ©이대웅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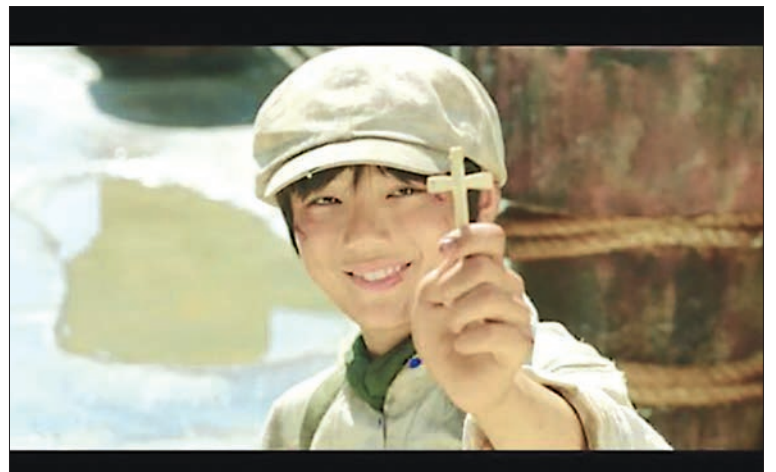
## 헤론부터 베어드까지... 양화진 선교사 열전

책 <양화진 선교사 열전(홍성사)>에는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묘원에 묻힌 외국인 선교사들의 ‘열전(烈傳)’이 담겨 있다. ‘여러 사람의 전기집’이라는 뜻의 ‘열전(列傳)’이 아닌 ‘열

## 우리나라 첫 선교사를 만나다 ‘병자들의 친구’ 헤론

전(烈傳)’인 이유는 “여기 수록된 이들이 한국인이었다면, 열녀(烈女)와 열사(烈士) 대접을 받기에 너그러워 민족의 은인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평생 ‘YMCA맨’으로 불린 오리 전택부 선생은 이 책에서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 존 헤론부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한국인의 친구 헐버트, 항일 언론 투자 베델, 송실대 창설자 베어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책의 첫 장은 ‘병자들의 친구’로 불린 헤론(John W. Heron) 선교사가 장식하고 있다. 1856년 6월 영국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헤론은 14세 때 가족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헤론은 의대로 진학, 27세이던 1883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졸업 전 교수가 되어달라는 요청도 거부한 채 ‘조선 선교사’를 꿈꾸고 있던 그는 결혼 후 1884년 봄 최초의 장로교파 조선 선교사로 정식 임명을 받았다. 조선으로 떠난 신혼부부는 교단 선교부로부터 일본에 가서 조선말을 배우다 1885년 6월 21일 입국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먼저 중국 선교사 출신으로 조선에 와 의료활동을 하던 알렌(H.



어린 시절 유진 초이가 미국으로 건너가는 모습

N. Allen)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국립병원 광혜원(廣惠院)의 2대 원장이자 조선의 왕 고종의 시의로 임명됐다.



양화진에 묻힌 헤론과 그의 묘지

## 병자들의 친구... 전염병 치료하다 전염병 걸려 순직

‘혜 참판(惠 參判)’으로 통하던 헤론 선교사는 병원의 이름을 제중원(濟衆院)으로 바꾸고, 위치도 외국인 거주지에서 구리계(을지로 1-2가 사이 고개)로 옮겨 왕실과 특권

층뿐 아니라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에게도 의술을 베풀었다. 당시 조선 땅은 천연두와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매독과 학질 등 전염병이 창궐했다.

이에 헤론은 6백리나 떨어진 시골에 가서 병자를 치료하기도 했다. 그러다 전염성 이질에 걸려, 한국에 온지 5년만인 1890년 7월 26일 숨을 거둔다. 동료 선교사들은 미국 공사와 논의한 끝에 헤론을 조선 땅에 묻기로 하고, 양화진을 묘지로 결정했다.

헤론은 매사에 정확하고 엄격했으며, 지칠 줄 모르는 정력과 풍부한 잠재력의 소유자였다. 1888년 조선 왕실이 선교활동을 억제했으나, 그는 ‘조용한 사업정책’을 채용했다. 뿐만 아니라 낮에 병원 업무를 하고 돌아온 뒤 밤늦게까지 성서번역에 힘썼고, 대한기독교서회의 전신 ‘한국성교서회(聖敎書會)’를 창설하며 문헌선교 출판에도 뛰어 들었다.

헤론은 가까운 친구 게일(James S. Gale)에게도 큰 감명을 줬다. 그는 친구인 헤론이 죽자 그의 미망인과 결혼했는데, 전 남편의 두 아이를 호적에 넣으면서 성 ‘헤론’을 그대로 남겼다. 이대웅 기자

## ‘거룩한 가치’로 운영되는 美 기독교 기업 5곳

기독교인 소유의 기업들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당신과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회사나 업체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회사의 설립 목적은 각자 다르다. 어떤 사업자는 단지 돈을 벌고 싶을 뿐이지만, 다른 사업주들에게는 더 깊은 목적이 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에 있다면 인앤아웃(In N'Out) 버거나 칩필레(Chick-Fil-A)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원할 만한 다른 기독교 업체들도 있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기독교 업체 5개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포에버 21(Forever 21)  
포에버 21은 모두를 위한 윈스톱 상

점이다. 옷, 가방, 신발,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 거기에 가격도 비싸지 않고, 선택의 범위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포에버 21을 특별하게 만드는 한 가지는 무엇보다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장씨 부부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며, 공동 운영자인 진숙 씨는 상점을 연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고백했다.

당신은 플라스틱 가방 밑에 적인 ‘요한복음 3:16’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2. 메리 케이(Mary Kay)  
메리 케이 애쉬가 설립한 메리 케이 코스메틱은 미국에서 유명한 코스

메틱 브랜드이다. 애쉬는 5천 달러로 투자를 시작했다. 회사의 모토는 ‘하나님 첫째, 가족 둘째, 경력 세번째’이다. 메리 케이는 성경의 구절을 회사의 월간지에 넣고 성경의 원리를 직장에 적용했다.

3. 인터스테이트 배터리스(Interstate Batteries)

처음 봤을 때, 이 배터리 업체는 기독교 기업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회사의 목적과 가치를 읽는다면, 놀랄 것이다. 사명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목적: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

양하며 삶을 풍요롭게 한다. 우리의 가치: 사랑,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섬기는 마음, 사람들의 필요를 잘 파악하라.

탁월함. 당신이 받은 재능으로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

용기. 배우고, 개선하고, 담대하게 해 나갈 때 문제가 바뀐다.

즐거라. 열심히 일하고 자주 웃으라.

팀. 함께,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다.


진실성. 있는 모습 그대로 행동하고 약속을 지키라.

4. 타이슨 푸드(Tyson Food)  
타이슨 푸드의 소유자인 존 타이슨은 2000년에 사제 프로그램을 시작했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주며 기도해주는 사목을 고용하고 있다. 최근 타이슨 푸드는 약 115명의 사목과 113,000명의 팀원을 두고 있다.

5. 하비 로비(Hobby Lobby)

미술품 및 공예품 체인점인 하비 로비는 매장 내 할인액의 10%를 학교, 교회,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고객들에게 기부금 만큼의 할인 혜택을 준다. 하비 로비의 사명선언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사명은 성경의 원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을 높인다.” 이는 매장이 주일마다 문을 닫는 이유이기도 하다.



#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 2018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9월 27일 개강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WWW.CTUIA.ORG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L.A, CA 90057

“생존 위한 선교단체의 교회화… 이것이 문제”

[인터뷰]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 ‘다음 세대’를 논하다

한국교회에 어린이와 젊은이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안다. 그들이 있어야 교회의 다음 시대를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와 ‘다음 세대’를 주제로 대화했다. 그는 한때 ‘캠퍼스 선교’에 젊음을 바쳤고, 지금도 교인의 70% 정도가 40대 이전의 ‘청년’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1996년 기쁨의교회를 개척했다.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다 왜 갑자기 교회를 개척했나?

“원래 불신자였다. 그러다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뿌리는 선교단체다. 졸업 이후 5년 간 직장생활을 하다다가, 선교단체 스텝으로 뒤늦게 새 삶을 시작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공허했다. 결혼도, 건강도, 물질도 어느 것 하나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루 5시간씩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서울에서 가까운 기도원을 찾았다. 그 때만 해도 기도원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었다. 매우 보수적인 신학교를 다녔던 터라, 기도원이 썩 담갑지 않았다. 하지만 기도원 말고는 하루 5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다.

이제 대한 참 긴 간증이 있는데, 여기서 다 말할 순 없을 것 같다. 그 1년의 기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 회개를 시키셨고, 성령까지 체험하게 하셨다. 내가 먼저 성령을 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 때 졸업을 앞둔 선교단체의 학생들이, 내게 교회를 개척할 것을 권유했다. 원래 졸업 후에는 각자 지역 교회로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데, 그러기보다 선교단체에서의 영성과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리고 약 20년이 지났다. 지금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회가 젊은이들을 수용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그들이 들어오기 싫은 게 아니라, 들어오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다.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와 문화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교회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목회자, 그 중에서도 담임목사가 다음 세대에 크게 관심이 없다. 말로는 위기가 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많은 담임목사들의 관심은 다음이 아닌 ‘지금 세대’에 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한때 왕성했던 선교단체들도 힘을 많이 잃은 것 같다.

“이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선교단체의 정체성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내가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 흔히 지역교회를 모달리티(Modality), 선교단체를 소달리티(Sodaloty)라 불렀다. 그런데 소달리티는 소달리티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 일종의 메인 스트림인 모달리티, 즉 교회가 타락해 자기의 길을 벗어날 경우, 이를 지적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개척하는 것이 바로 소달리티의 역할이었다.”

우리나라 학생 선교단체에도 그와 같은 사명이 있었다. 그런 선교단체들이 한창 성장하던 1970-80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설교가 목회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전파하고 가르치셨으며,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3중 직무에 비춰볼 때, 당시 교회

는 그야말로 전파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 때 선교단체는 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훈련시켰다. 그런데 교회가 이를 좋게 보지 않았다. 제자훈련을 이단시 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어떻게 목사도 아닌, 심지어 학생이 성경을 가르치느냐’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은 역동적인 선교단체에 매력을 느꼈다.

앞서 말했듯이, 소달리티인 선교단체의 정체성은 모달리티인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다. 교회가 보지 못하는 걸 앞서 보고, 그들보다 한 발 먼저 내딛어 교회를 깨워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선교단체의 그것을 120프로 수용하면서, 선교단체가 설 자리를 잃었다.

그런 한편, 시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요즘 캠퍼스에서 전도하기가 어렵다. 전도하면 신고당하는 세상이다. 또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만연해, 이를 반대하는 선교단체를 원수시한다. 그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영적 파워가 있어야 이를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른 동아리들에 밀려 선교단체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

-선교단체 출신으로서 그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교회가 하지 못하는 걸 하라는 거다. 20-30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 그 때 교회가 건강하게 남아 있기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선교단체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교회 내부에선 그걸 보기가 힘들다. 밖에서 자극을 주어야 한다.”

일단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하나는 캠퍼스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외국인 200만 시대다. 그들이 캠퍼스에 가득하다. 과거 우리의 선교 전략은 보내고 나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했다. 그런데 이젠 나가는 게 힘들다. 중국만 봐도 요새 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다. 반면, 한국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이들을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 전략이다. 결국 제자훈련의 목표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하는 것이



불신자였다가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난 1996년 지금의 기쁨의교회를 개척한 정의호 목사

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서로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자면 개인의 일상에서 벗어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 그나마 음악과 노래를 주요 매개로 하는 찬양 집회다. 이를 어떻게 보나?

“전도적 측면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찬양집회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들에게 숲 속 공간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 자체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겨선 안 된다. 말 그대로 전도를 위한 첫 단계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다.”

만약 교회가 이런 훈련은 제공하지 않은 채 그저 젊은이들을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찬양집회만 드리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찬양을 하는 그 순간은 좋겠지만,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까닭이다. 즉 멘탈이 약한 기독교인을 만들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는 이유는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까지 전해지지 않는, 이른바 ‘신앙 단절’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흑자는 이를 두고 ‘교회가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

기고 있다’ 고까지 표현한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나는 아버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교회에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직장 때문이다. 가정의 구성원 중 아버지는 주로 직장 생활에 삶의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에 비해 어머니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그런데 아버지의 신앙이 흔들리면 대개의 경우 자녀의 신앙도 그렇게 흔들린다. 아버지의 삶과 가치관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아이들은 부모를 그대로 따라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결국 아이들만 믿는 부모가 우선 되어야 한다. 실제 아버지가 변해서 가정 전체가 바뀌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끝으로 ‘다음 세대’와 관련해 한국 교회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대통령이 변하면 나라가 변한다. 마찬가지로 담임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바뀐다. 한 교회에 있어 담임목사의 역할은 이처럼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오늘날 각 교회의 담임목사들이 그들 세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단지 마음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60대인 나는 27세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대학생들과 대화한다. 그들의 집회도 자주 인도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때론 이해 못할 행동들도 많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보다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을, 젊은이들이 스스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곳으로 조금씩 바꾸어 가야 한다. 나 역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성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AB),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문, 사회 및 인공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8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권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8,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ou.edu aeuinstitute@gmail.com

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육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선교의 문을 여는 책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15)- 이도영 집사

모태 신앙인들이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었다. 필자의 목회 현장에서 만난 모태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못해 신앙인”이 있었다. 체험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본 까닭이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 하면서 모태 신앙인들을 새롭게 보게 된다. 특히 부모님의 기도를 보고 배운 사람들,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란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보는 것이다.

몹시도 더웠던 7월의 어느날 기자는 이도영, 이설희 집사(남가주 동신교회) 부부를 만났다. 이 도영 집사(James Lee)의 작품과 삶의 흔적들을 살피기 위해서 이 집사 자택을 찾았다. 이도영 집사의 작품들 속에서 또 그들의 고백과 간증 속에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만지게 되었다. 두 집사들은 고난과 아픔을 이기며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두 사람 간증을 들으면서 그들의 부모님의 기도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오래된 격언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를 중얼거렸다.

### 기도위에 세워진 인생

이도영 집사는 모태 신앙인이다. 모계 가족으로 보면 3대 신앙이다. 외할머니는 기도 용사로 사셨다. 할머니가 딸에게 주신 결혼 조건은 신앙생활 하는 청년을 데려오라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 이도영 집사는 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기쁘고 행복했다. 소년 이도영이 할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손자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 그러다가 13살에 미국 이민을 왔다. 가장 먼저 교회를 찾았다. 샌디에고 영락교회! 소년 이도영의 안식처였다. 십대의 갈등과 이민, 학교생활의 갈등과 아픔을 교회에서 풀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게 된 것이다.

###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려운 가운데 세월이 흘러 대학생이 되었다. 미술대학을 다녔다. 뜻밖한 대학생 이도영은 열심히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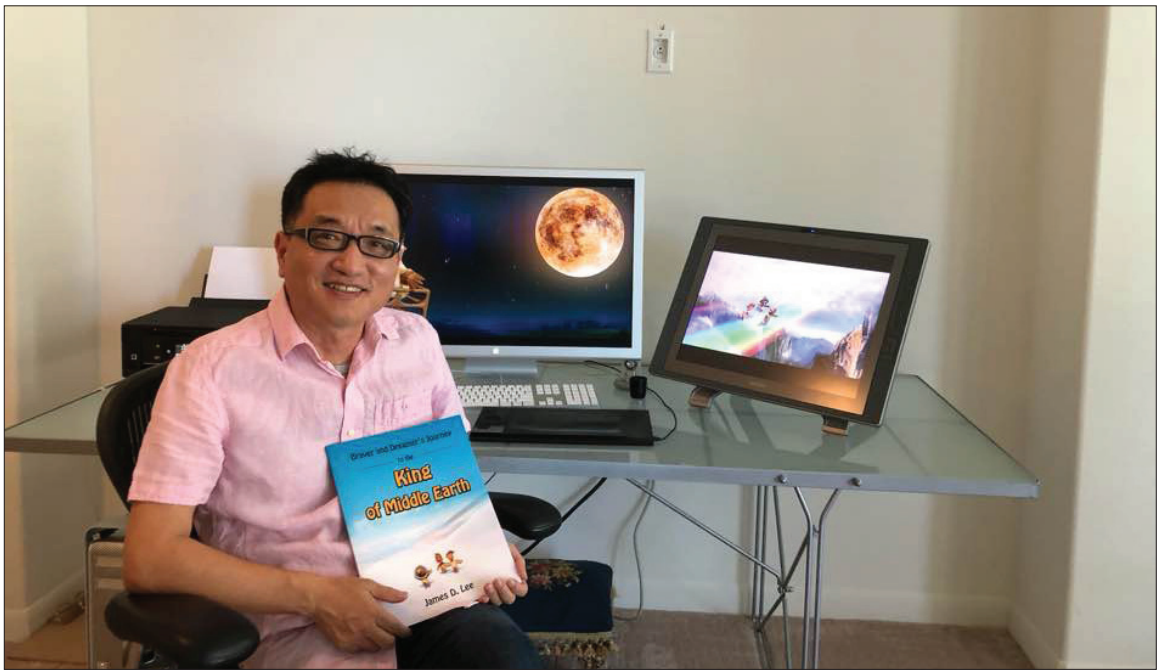
부하였다. 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밤늦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문득 기도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리고 순수한 신앙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밀려왔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다. 유능하고 유명한 Patricia라는 디자이너를 만나게 하셨다. 할리웃에서 인정받는 영화의상 디자이너였다. Patricia는 이도영 학생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고, 잘 지도해 주었다. 이도영 학생은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물론 이도영 학생의 피나는 노력, 좋은 선생님의 지도 등이 큰 힘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도영 집사는 늘 기도의 힘을 느끼며 살아간다. 학창 시절 속에서 젊은 날의 작업의 현장에서 문제들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부모님과 할머니의 기도를 기억했다. 어렵고 힘든 패션계의 문화를 극복해야 할 때마다 할머니의 기도와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극복했다. 할머니와 부모님의 기도는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었고 새로운 도전의 동기가었고, 믿음을 지키는 안전장치였다.

하나님께서 이도영 집사를 영화 산업으로 인도해 주셨다. 학교에서 패션 디자이너인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믿음의 동역자요 격려자요 인생의 동반자다. 한참 교제하던 시절, 이설희 집사가 “만만치 않은 패션 디자이너로 살지 말고 그래픽 디자이너 영화를 해 보라!”고 권면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되었다. 영화에 특수효과 음향을 통해서 영화 산업에 도전하게 되었다.

영화는 전혀 새로운 분야였는데 과정이 순조로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이틈만 대면 알만한 할리웃 영화 작품들에 참가하는 영광도 주셨고, 기라성 같은 영화 종사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제작에 참가한 영화들은 “페이스 오프(Face Off)” “타이타닉” 그리고 “The Rock” 등 등이다. 그런데 이런 대작들을 통해서 영화 산업의 재미도 보고 성공도 경험하였지만 할리웃의 성공에 탐닉하지 않았다. 오히려 초연하게



이도영 집사

그 성공을 누리면서 좋은 기회들을 흘려 보내고 있었다.

2001년경 영화 “해리포터”에 동참하여 함께 일하면서 아이들의 기호와 관심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만약 성경과 영적 진리를 이런 영화 산업으로 발전시키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를 개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스토리를 쓰고 싶은 열정을 품게 되었다. 이것은 젊은 날 대학 도서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했던 이도영 학생의 기도가 실현되고 있었다.

### 좌절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

모든 일에 순조롭고 순탄하게 잘 나가던 이도영 집사의 삶에 작은 파문이 찾아 왔다. 여러 작품을 같이 작업했던 친구인 Nathan Macguinness가 Double Negative라는 세계 제일의 영화 회사 싱가포르 지사장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도영 집사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것도 테크니컬 디렉터로 일하는 제안이었다. 좋은 여건이었다. 이도영 집사 부부는 싱가포르의 삶에 만족하며 즐거운 삶을 살고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이도영 집사가 검진을 했는데 갑상선 암이었다. 부부는 몹시 당황하였다. 하지만 곧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사인으로 이해하고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였다. 믿음의 사람 이도영 집사 부부는 이 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

려 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할 기회를 찾게 되었다.

### 어린 영혼들을 위한 King of Middle Earth를 펴내며

한국과 싱가포르를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과정이 1년 정도였다.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1년의 치료기간 많은 사랑을 받았다. 회사와 주변 사람들의 배려와 격려를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기간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용기를 주셨고, 치료의 기회를 주셨고, 잊었던 꿈을 되살려 주셨다. 막연히 꿈꾸던 아이들을 위한 스토리를 구상하며 아픔을 이길 수가 있었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사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구상했지만 쉽게 시작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회복시키시고 책을 쓰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을 보게 된 책이 King of Middle Earth이다.

책을 쓰는 3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과정이었다. 몸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할리웃이 보였다. 할리웃에 있는 돈과 명예와 성공이 보였다.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흐트셨다. 때로는 눈에 얼러지가, 때로는 체력이, 때로는 다른 문제로 정신을 차리게 하셨다. 그 때마다 회개하며 두 가지 기도를 생각했다. 먼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자신이 드린 기도와, 부모님과 할머니께서 드린 기도와. 이도

영 집사는 기도를 많이 한다. 가장 우선되는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소서!”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한 손으로는 구제를 하고, 한 손으로는 선교를 하는 아들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다. 이도영 집사가 이 어머니 기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둘째로 이도영 집사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려 지기를 원한다. 지금 막 출판한 이 책 “King of Middle Earth”를 통해서 중국과 남미의 넓은 세계가 복음으로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 셋째는 앞으로 나올 책들을 위한 기도가 있다. 이도영 집사 머릿속에는 앞으로 나올 책들의 내용이 가득하다. 이미 구상된 주제가 믿음 그리고 구제이다. 이런 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넷째로 이도영 집사는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 사역을 꿈꾼다. 이런 일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많다. 젊은이들에게 새롭고 건전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의 침략으로부터 교회와 젊은이들을 방어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고 싶은 것이다.

이도영 집사는 화려한 세상의 기쁨과 자랑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달리고 있다. 새롭다는 말은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새 삶이란 의미다. 기자가 만난 이도영 집사와 이설희 집사는 은혜로 충만했고 선교적 비전과 열정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

강태광 편집위원

# 서철원 박사 교의신학 전 7권 완간!

## 전통적 개혁신학 입장에서 체계화한 교의신학의 결정판!!



###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조직신학 책의 완성판

서철원 교수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B.A), 동 대학원 (M.A), 총신대 신학대학원,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대학원 (Th.M),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Dr. Theol)를 졸업하였다.

자유대학교 신학박사 학위논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중보직」(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은 20세기 100대 신학저술 모음인 Theologicum에 수록되었다.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귀국하여 개혁신학연구원 교수, 총신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부총장 역임), 한영신학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하였다.

저서로 『교리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한글 및 일어번역판), 『성령신학』, 『하나님의 구속경륜』, 『신앙과 학문』, 『복음적 설교』, 『하나님의 나라』, 『문화명령』, 『종교다원주의』, 『창조신앙』, 『기독교문화관을 출판하였다. 『언약사상에 대한 새로운 사상』(A New Thought on the Covenant Idea, contributed to the International Reformed Theological Journal of the Netherlands) 외 다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서철원 교수

- I. 신학서론 \_ 믿음으로 신학학 304면 / 22,000원
- II. 하나님론 \_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사역 392면 / 26,000원
- III. 인간론 \_ 인간 하나님의 형상 416면 / 29,000원
- IV. 그리스도론 \_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의 구원사역 296면 / 22,000원

- V. 구원론 \_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됨 264면 / 20,000원
  - VI. 교회론 \_ 교회, 하나님의 집 176면 / 15,000원
  - VII. 종말론 \_ 창조경륜의 궁극적 성취 280면 / 20,000원
- 1세트(전7권) 154,000원



# 가을 맘씀잔치

주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합 3:2)

초청합니다!!

한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누그러지면서 어느새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조석으로 우리를 스쳐갑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 기쁜우리교회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진정한 자아와 참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 말씀 잔치를 마련하였사오니  
많이 참여하셔서 크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 일 시: 9월 7일 (금)~9일 (주일)

9월 7일 (금)	저녁 7시	고난이 주는 축복	시 119:67,71
9월 8일 (토)	새벽 6시	하나님을 아는 축복	대하 7:14
9월 8일 (토)	저녁 7시	복음전도의 축복	행 1:6-8
9월 9일 (주일)	1부~3부	형제 화해의 축복	창 45:1-11
9월 9일 (주일)	저녁 6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잠 29:18



강사: 임 현 수 목사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목사)

[약력]  
한국대학생선교회(CCC) 간사  
캐나다 토론토 닉스 신학교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전도사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2대 담임목사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목사  
現 세계협력선교회(GPA) 이사장



## 기쁜우리교회



교회 비전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담임목사 김 경 진



교회 Website: [www.joyfulccc.org](http://www.joyfulccc.org)  
EM Website: [www.joyfulcc.com](http://www.joyfulcc.com)  
Email: [joyfulCCC.office@gmail.com](mailto:joyfulCCC.office@gmail.com)

주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전화번호: 818-662-0400 . Fax: 818-662-0800